

오피니언

월/요/광/장

최협



구례군과 광양군에 포함되어 있는 지리산의 56%, 백운산의 46%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숲이 서울대학교의 연습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 농생대는 어떤 대학인가? 서울대의 농생대는 수원에 있었는데 교수들이 주장하여 서울로 옮겨 갔다. 이는 미국에서 뉴욕주의 시골 코넬대학에 있는 농대를 번안한 뉴욕시의 컬럼비아대학으로 이전한 꼴이다.

넓고 쾌적한 실습농장이 잘 갖추어진 충북대학에 근무했었다면, 그래서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더라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연구를 위해 연습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대학을 굳이 서

서울대 연습림 논쟁과 대학 개혁

울의 한복판으로 옮겨 갈 것이 아니라 연습림 근처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때마침 교과부는 지난 23일 강원대와 충북대, 강릉 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발표했다. 물론 우리나라 대학들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서울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학이며, 그래서 세계무대에서 하버드, 옥스

퍼드, 베이포드 등과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서울대는 몸집만 부풀려져 운신이 어려운, 일종의 성인병을 앓고 있는 환자 꼴이다. 우선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들 중에서 서울대만큼 많은 단과대학과 학과, 그리고 전문대학원을 거느린 곳은 없다.

서울대는 마치 온갖 종류의 잡다한 물건들을 모두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잡화점 같아서 무려 16개의 단과대학에 특수 전문대학도 9개나 거느린다.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스탠포드대학 같은 곳은 7개의 대학만으로 구성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몇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을 보더라도 베이징대는 기본적으로 사회, 정치, 법 분야, 칭화대는 이공계, 그리고 상해의 푸단대는 인문학분야의 최고 대학이다.

또한 미국 주립대학 중 최고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도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된다. 즉 버클리는 기초학문, 데이비스는 농업, 샌디에고는 해양학, 로스앤젤레스는 경영학 및 예술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체제를 갖추어 학생들이 분야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대학들을 보더라도 하

버드에는 농대와 공대가 없고, 버클리에선 의대가 없다. 사실 통부의 명문인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기초학문과 전통적 몇 분야에 치중한다.

이는 어느 한 대학이 싸움이라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대학 간의 서열화 문제가 크지 않고, 대학의 특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서울대학에는 기초학문이나 첨단과학뿐만 아니라 농업, 미술, 음악, 심지어는 아동소비재 분야까지 없는 분야가 없으니, 국립대학의 특성화가 제대로 진척될 리 만무하고, 대학의 줄세우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필요로 하고,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탄 환경에서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몇 분야에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 국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서울대학의 구조개혁이고, 지리산의 연습림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가 반란자도 국립묘지 안장되는 현행법

군사 반란 판결을 받았던 12·12사태 관련자 중 5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국립묘지 안장 논란을 빚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비롯해 유학선 전 국방부 군수차관보, 정도영 전 보안사 보안처장, 정동호 전 청와대 경호실장 대리, 김효영 전 2기갑여단 16진차 대대장 등이다.

이들은 12·12 사태 및 5·18 민주항쟁과 관련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16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5·18 관련자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강제진압을 통해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을 살상한 군부의 지휘 선상에 있었던 자들이다.

특히 12·12 사태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유학선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 숨졌지만 범법자임에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국립묘지법이 너무 허술하다는 데 있다. 안세 등과 같이

12·12와 5·18 항쟁 진압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인사들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죄가 확정된 내란·외환 범죄자도 안장 배제 사유에는 제외돼 있다.

이 같은 법적 허점 때문에 12·12사태로 서울이 취소된 정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후 안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이다.

따라서 내란죄도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는 물론 연루된 사실이 관명된 인사들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국회는 현재 상정돼 있는 내란범죄자 등을 안장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자와 국가(國基)를 훼손한 반민주·친일인사들이 국립묘지에 함께 안장돼 있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말도 허술하다는 데 있다. 안세 등과 같이

'미적미적' 혁신도시, 정부가 앞장 서라

혁신도시가 '곰팡이 도시'가 되고 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미적거리고 있어 당초 목표했던 오는 2012년 말 완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완공이 1년 여박에 남지 않았으나 청사 착공에 들어간 공공기관은 15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1곳 뿐이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곳은 아직까지 부지 매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사옥 착공 예정인 공공기관 대부분도 착공 예정시기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신사옥 공사기간이 최소 1년6개월 또는 2년 정도 소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계획했던 내년 말 입주하는 물 건너 간 셈이다. 혁신도시의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혁신도시 추진의 지지부진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대통령령까지 나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공언하고 있으나 정작 이전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마당에 지방이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겠는가.

혁신도시의 날로 심화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더 이상 해당 지자체나 이전대상 공공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사업 진척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전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기관은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법조칼럼



김민형

법률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그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 명 한명의 얼굴이 똑같지 않듯 사건기록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인생살이 또한 천차만별이다.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던 2001년 봄, 필자는 당시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의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됐다. 기록상 주된 죄명은 절도였지만 그 내용은 다소 특이했다.

그 피고인은 여장남성이었다. 자신이 일하던 미용실 주인의 돈 수백만 원을 훔친 뒤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녔다는 것이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미용실 주인도 여장남자였는데, 미용실 주인이 일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완전한 여성이 된 것을 보고 피고인 자신이 여자라고 믿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참 특이한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구치소에서 그 피고인이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와 격리조치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

변호인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증빙 한자임을 나타내는 줄무늬 수의를 입고 어깨까지 오는 긴 파마 머리를 한 피고인이 다가왔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몸매도 호리호리할 뿐만 아니라 머리로 길고 해서 언뜻 보면 여성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남자임을 알 수 있는 외모였다.

피고인과 약수를 하고 국선변호인으로 찾아 왔음을 말해 준 다음 피고인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전해 들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신체적 이상 징후를 느껴 바로 가출을 했고 그때부터 40대 초반

타인의 삶

인 당시까지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누리본 적이 없었다.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여장을 한 채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남자라는 게 들키면 매를 맞거나 월급도 받지 못한 채 그날로 바로 쫓겨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때 미용실 주인을 만나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런 미용실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훔쳤다가 그마저도 브로커들에게 속아 일본에는 가보지도 못하였다.

에이즈에 걸린 것도 최근에 구치소에서 알게 되었지만 그냥 구치소에서 주는 약을 복용할 뿐 연락할 가족도 없고 해서 뻘쭙한 대목도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듣고 나니 뭔가 알 수 없는 막막함과 함께 비록 국선변호인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자는 마음이 들었고, 다행인지 미용실 주인도 비록 훔쳐간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도 브로커들에게 속았으니 선처를 해 달라고 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기고



임현모

우리 기성세대는 흔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고, 또 무의식중에 그렇게 말해오곤 했다.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과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근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즘 젊은이들이나 아동들이 통일문제에 무관심하고, 통일보다는 분단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통일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니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저희 대학 학생들과 광주·전남 초등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비슷한 현상이었다. 온 국민이 입시와 취업과 노후문제 등으

우리의 통일 의지는 사라져 가는가

로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적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들여가며 복잡한 북한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통일문제에 소홀하거나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남북한 모두 상대적이기는 하나 매우 어렵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상층에 가는 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는가의 기로에서 매우 복잡한 국내외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은 계속 경제난에 시달리며 지구촌의 빈곤국가로 전락하였고, 이제는 점차 주요 산업기반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평양시내 각종 업

종 운영권, 나진 선봉지구 개발권과 주변 항구사육권, 신의주 일대 황금평 개발권, 무산 탄광 등 각종 회토류 광산 개발권, 엄청난 매장량이 예상되는 남포 앞 해상 유전 개발권 등도 중국과 장기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사회는 엄연하고 냉정한 약육강식의 사회이다. 그리고 현재 동북아 국가들은 각종 영토분쟁 중이다. 일본이 독도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듯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 고구려, 발해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을 자기 역사에 포함하려고 꾸준히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어도 해상기지 설치에도 시비를 걸고 있다.

남북분단은 우리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주변국의 간섭을 초래하는 발미를 주고 있다. 그리고 상호 난 엄중한 분단비용과 고통을 주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 하

에 있게 되면 우리는 대륙과 단절된 섬나라처럼 되고 더욱 위축될 것이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한민족의 공멸을 방지하고 남북 모두 번영하여 모두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통일한국이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을 2050년경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예상한 미국 골드먼삭스의 분석을 냉소적으로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 한반도 통일은 우리 힘으로 반드시 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새로운 도약이 통일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이 그리하였듯이 우리의 학교 통일교육도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나날이 이기적이고 낙약해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민족교육을 포함한 시민교육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며, 여기에 언론 특이 방송이 청소년의 취향에 맞게 각색하여 홍보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광주교대 교수 전 총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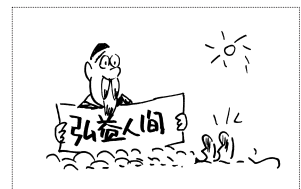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자주 세상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할 때, 환인이 그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만하다' 생각하여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3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본이념도 '홍익인간'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목표임을 천명하고 있다. 인류 공영의 가치를 담은 홍익인간 정신은 다문화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덕목이기도 하다.

홍익인간



한국유사에 실린 국조(國祖) 단군의 건국신화 중 일부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재세이화(在世理化)가 그것으로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다.

홍익인간 사상은 노비 해방과 신분제 철폐로 봉건시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평등세상을 열고자 했던 동학(東學)으로 이어졌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이었다. 이는 농민혁명을 비롯해서 3·1운동과 개화기 농민·청년·여성 운동에 정신적 지양분을 제공했다. 교육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교육의 근

하지만 언제부턴가 건국 신화를 한낱 설화(說話)로 치부하면서 단기 연호는 폐지됐고 개천절은 개국기 기념일이라기보다 민족 종교단체의 행사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홍익인간의 정신도 흐릿해졌다. 그 자리에 세계화, 선진화의 미명 아래 효율성과 무한경쟁, 개인주의가 철썩고 봉건시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평등세상을 열고자 했던 동학(東學)으로 이어졌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이었다. 이는 농민혁명을 비롯해서 3·1운동과 개화기 농민·청년·여성 운동에 정신적 지양분을 제공했다. 교육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교육의 근

아래 효율성과 무한경쟁, 개인주의가 철썩고 봉건시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평등세상을 열고자 했던 동학(東學)으로 이어졌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이었다. 이는 농민혁명을 비롯해서 3·1운동과 개화기 농민·청년·여성 운동에 정신적 지양분을 제공했다. 교육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교육의 근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logo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